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궁지



2018. 6. 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유적위치도

아라가야
추정왕궁지
과거와 현재



1954년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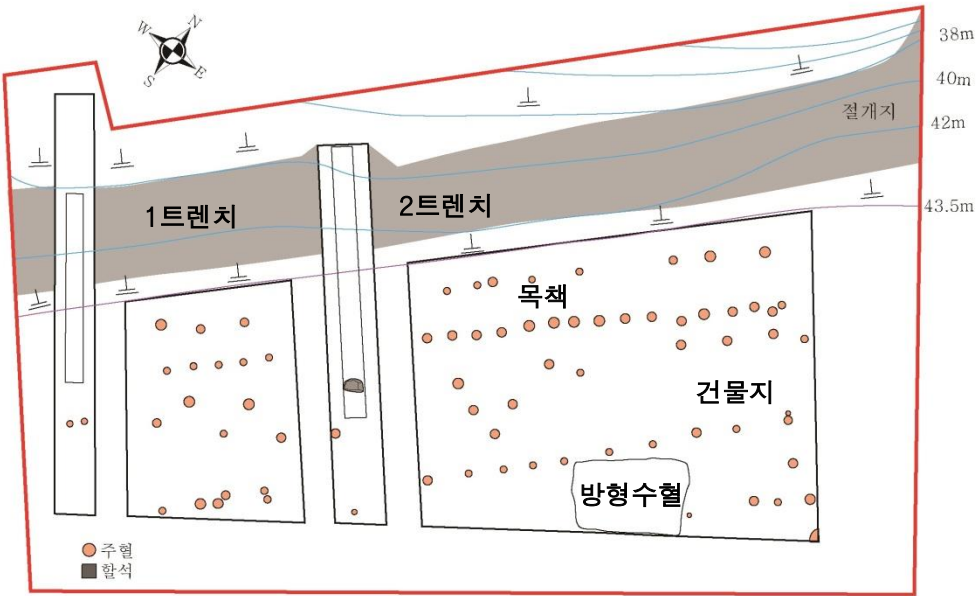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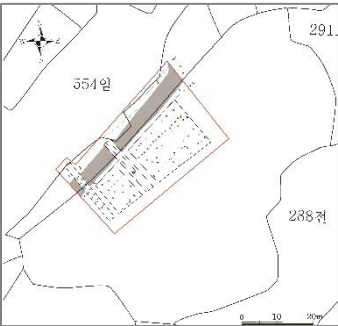
발굴조사 구역은 약 1,300㎡이며, 조사는 경작지 조성과정에서 일부 노출된 목탄층의 범위 확인조사와 토축 단면조사, 토축 상면의 평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토축은 정교하게 쌓아 올린 대규모 성벽으로 확인되었으며, 목탄층은 성벽 축조과정에서 조성된 것이었다. 또한, 토성 내부에서는 목책열과 건물지, 방형의 수혈 유구가 발견되었고, 유물은 고배, 기대, 연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조사 내용
유적 전경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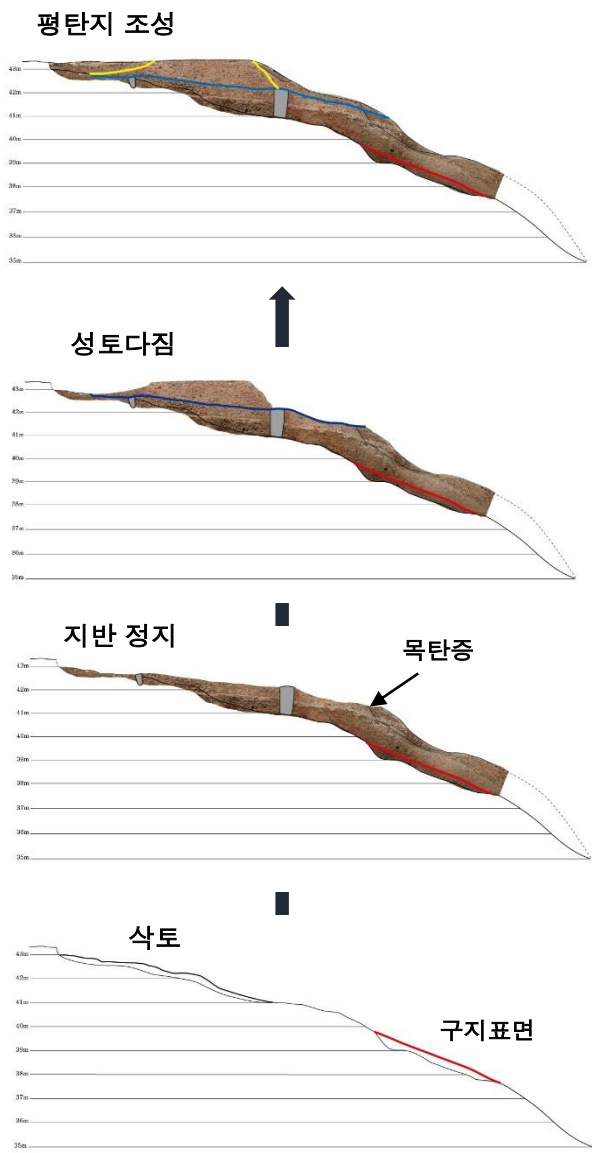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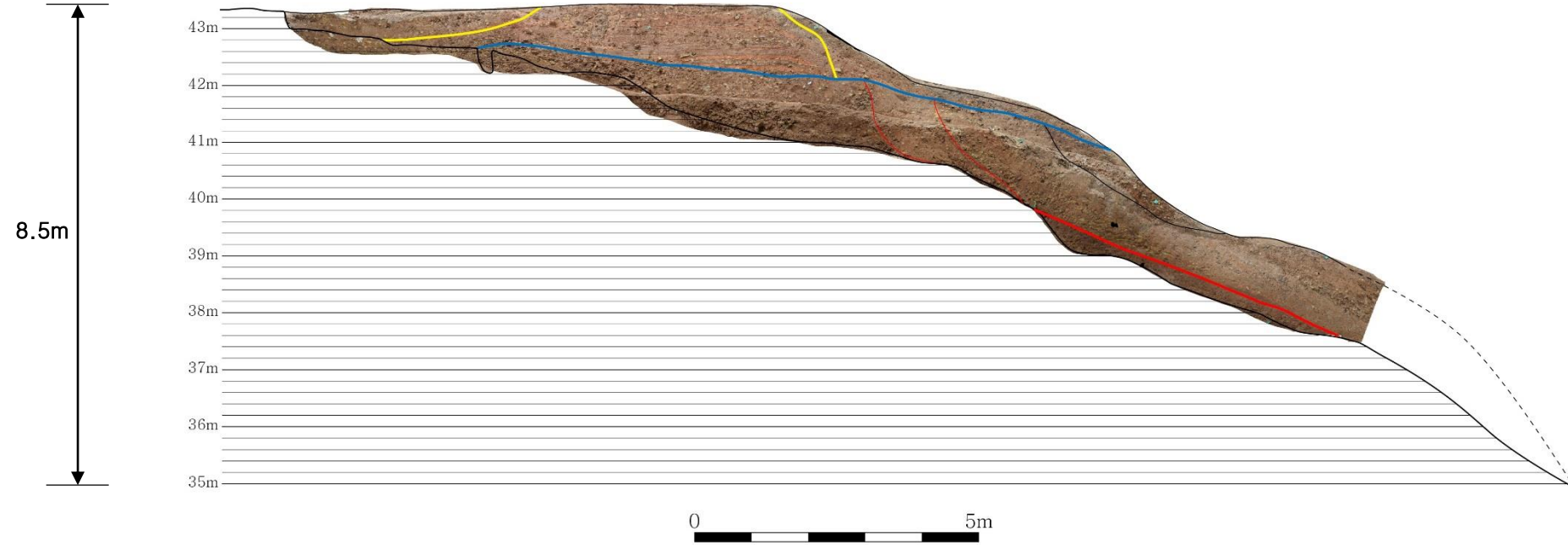
조사 내용 토성벽 조사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은 가야권역에서 발견된 동시기 유적과 비교할 때, 그 동안 발견된 사례가 없는 축조기법과 규모를 보인다. 성벽은 흙을 쌓는 과정에서 벽이 밀리지 않도록 축조 공정마다 목주를 설치하고 있으며, 판축상의 성토다짐을 하는 등 매우 정교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다. 토성의 규모는 현재 조사구역 내에 한정지어 보면, 전체 높이는 약 10m이며, 상부 폭 20~40m 내외이다. 이와 같은 축조기법을 이용한 대규모 토성은 가야권역에 존재하는 동시기의 토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이다.

성벽 축조는 구지표면의 일부 삭토, 풍화암반토와 점질토를 이용한 정지면 형성, 성토다짐과 평탄지 조성 등, 모두 4단계로 이루어졌다. 성벽 축조양상은 1트렌치와 2트렌치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1트렌치의 축조과정을 보면, 먼저, 삭토는 성벽 전체 구간이 아닌 성벽 내부에 해당하는 일부 구간의 풍화암반토를 제거하였다. 이후 정지면은 풍화암반토와 점질토를 번갈아 가며 쌓아 올렸는데, 2개 구간을 나누어 각기 공정을 달리 하였다. 성벽 내부 구간에서는 풍화암반층과 성벽 사면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목주가 확인되어 성토과정에서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 외부 구간은 사질토와 점질토로 성토하였다. 이 구간의 상면에는 목탄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나뭇가지를 깔고 불을 놓아 지면을 단단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부는 점질토와 사질토를 번갈아 성토한 판축상의 다짐층을 조성하여 평탄면을 만들었다. 이후 판축상의 성토다짐 외벽에 정지면 조성 과정과 마찬가지로 점질토를 덧대어 사면 처리하고, 내벽부는 암반토로 성토하여 성벽 내부 전체를 평탄지로 조성하였다.



성벽 축조공정



목주

성토다짐

암반층
목주흔

목탄층

풍납토성

13.3m

몽촌토성

6m

합천
성산토성

4.1m

양산
순지리토성

4m

김해
봉황토성

2.8m

*성토부 잔존높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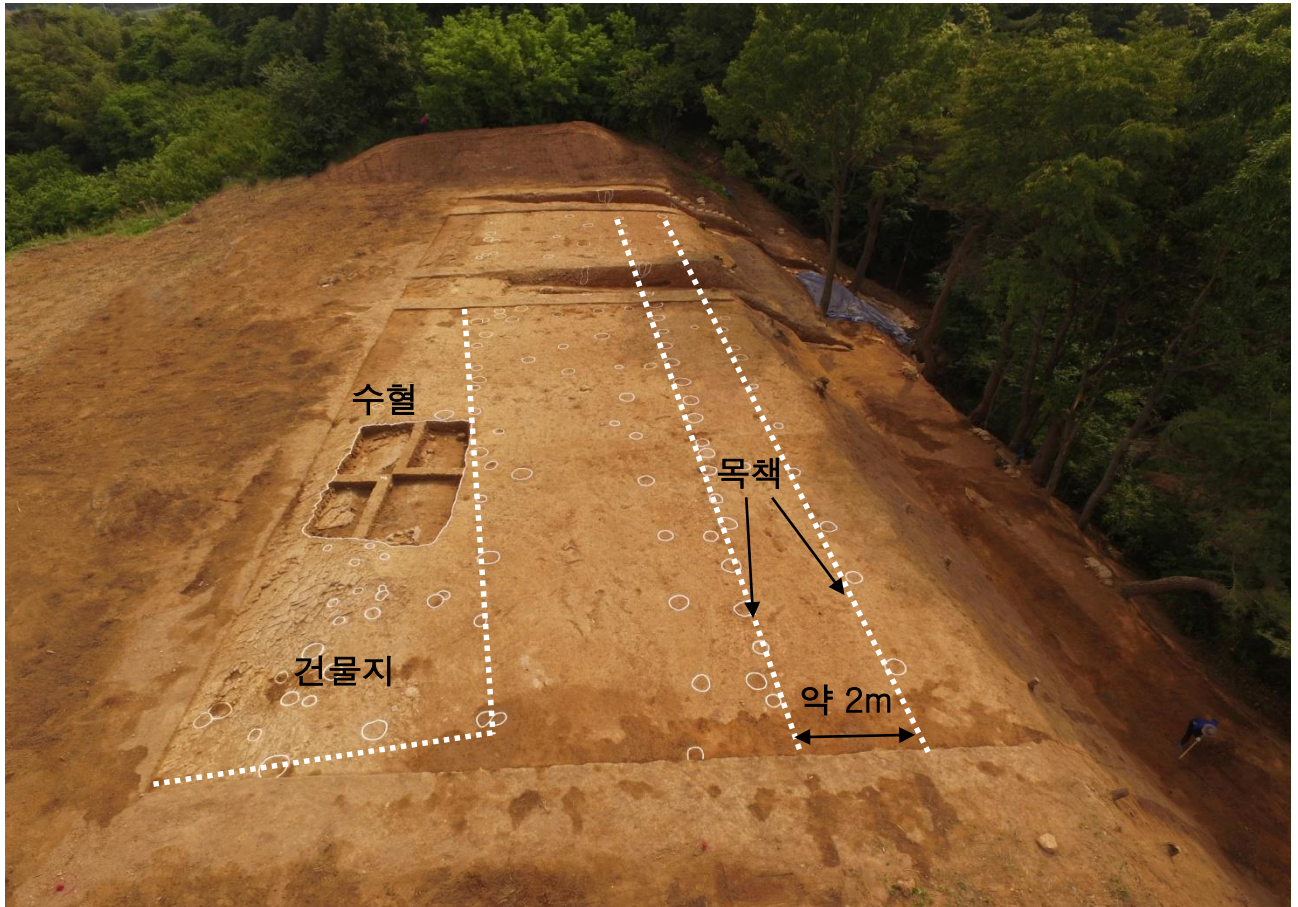
조사 내용

목책 건물지 수혈

목책은 성벽 상부의 바깥쪽 외곽선을 따라 2열의 목주열이 확인되었고, 목주열 사이의 간격은 약 2m이다. 각 목주열 내에서 목주 간 거리는 약 1m이며, 목주의 직경은 30cm 내외이다.

건물지는 현재 정확한 형태와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고상건물지로 추정된다. 건물지 중에는 장방형의 대형건물지도 확인된다. 특히, 토성 내부 상면에 노출된 암반층에서는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깎은 흔적이 다수 확인되어 토성 내부 평탄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사이에서 발견된 수혈은 장방형(525×340cm)을 이루고 있으며, 깊이는 약 50cm이다. 수혈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내부에서 통형기대편, 파수부완 등이 출토되고, 부뚜막시설이 있어 특수한 목적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목책과 건물지



출토유물

조사 구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토기편이다. 유물 출토지점은 토성벽 내부와 건물지 상면, 방형수혈 등이다.

토성벽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편이며, 목탄층 하부의 점질토층에서 확인되었다.

건물지 상면과 방형수혈 내에서는 통형기대, 파수부완, 적갈색 연질토기가 출토되었으며,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의 유물로 편년된다. 유물 중에서는 대가야 양식의 개(蓋)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방형수혈 내
통형기대 출토상태



“베일에 싸여 있던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 처음 확인”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경남 함안군 가야리 289번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해 축조된 토성과 목책 시설, ▲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수혈 ▲ 5세기 중반~6세기 전반의 각종 토기편이 출토되어 그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 문헌과 구전에 남아 있는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를 처음 확인

그 동안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일대는 1587년에 제작된 조선시대 읍지 『함주지(咸州誌)』와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보고에서 아라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었다. 또한, 주변에 ‘남문외고분군’, ‘선왕고분군’, ‘신읍(臣邑)’ 등 왕궁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 있어 왕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그 실체를 밝혀 줄 수 있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토성, 목책, 건물지 등 왕성으로 추정되는 시설을 발견함으로써 전성기 아라가야의 실체에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2. 가야권역의 동시기 토성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규모 토축시설 처음 발견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은 가야권역에서 발견된 동시기의 유적과 비교할 때, 그 동안 발견된 사례가 없는 축조기법과 규모를 보인다. 성벽은 흙을 쌓는 과정에서 벽이 밀리지 않도록 축조 공정마다 나무기둥을 설치하고 있으며, 판축상의 성토다짐을 하는 등 매우 정교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성벽 상부에는 2열의 나무기둥이 확인되는데, 방어시설인 목책으로 추정된다. 토성의 규모는 현재 조사구역 내에 한정지어 보면, 전체 높이는 약 10m이며, 상부 폭 20m 내외이다. 이와 같은 축조기법을 이용한 대규모 토성은 가야권역에 존재하는 동시기의 토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이다.

3. 아라가야 전성기인 5세기~6세기 최고지배층 거주공간의 존재 가능성 확인

토성 내부의 건물지와 수혈에서는 통형기대, 파수부완,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은 아라가야 대표 양식의 도질토기로, 대체로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으로 편년된다. 이 유물들을 통해 토성의 축조와 사용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아라가야 세력이 대형 고총고분을 축조하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교섭을 전개하였던 전성기에 해당한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은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경제적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서기』 흘명기 552년 기록에 등장하는 ‘안라왕(安羅王)’의 실제 거주 공간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아라가야는 가야 전·후기를 거쳐 금관가야, 대가야와 함께 가야의 중심세력을 이루었고, 6세기에는 신라, 백제, 왜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고대사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고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는 이러한 아라가야의 실체를 밝히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번 아라가야 왕성 발굴조사를 계기로 당시의 토목기술과 방어체계,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고고자료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아라가야의 전모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